



[산업] 디자인의 힘! 기아 K 10년새 550만대 지금도 전성기 08



Life

[바이오] 유스바이오글로벌 몸 안에서 혈관재생 줄기치료제 박사 L2



이집트 나일강 중류 룩소르 서쪽 교외에있는 이집트 신왕국시대의 왕릉이 집중된 골짜기 '왕가의 계곡' 전경. /NHN여행박사

# “인살라!”... 직접 마주하는 고대문명 신비의 나라 ‘이집트 일주’가 뜬다

## 메트로 트래블

인류 문명 발상지...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피נק스가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이집트는 신비롭다. 수천 년 전 과거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 얼마나 흥미로울까.

그래서 이집트를 선택하나. NHN여행박사의 한진관광,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KRT가 '이집트 일주' 상품에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사실 지난 2월, 이집트 관광청 한국 홍보사무소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이집트 장관단 인터뷰 등 일정이 잡힐 때부터 올해 이집트 관광에 대한 치열한 조짐은 보였다.

보통 이집트상품은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를 대표하는 7대 관광도시인 카이로·아스완·아부심벨·콤음보·에드푸·룩소르·후르가다로 이동하며 위대한 고대 문명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일정이다.

항공편을 보면 겨울 대한항공은 작년 2배수준인 10편의 직항 전세기를 이집트 라인에 투입했다. 좌석도 2100여석이 됐다.

오는 12월 21일, 28일 2차례 운항하고 1월에는 4일, 11일, 18일, 25일, 2월에는 1일, 8일, 15일, 22일 등 총 10차례 운항계획이 섰다.

아시아나항공 직항 전세기는 2편 더

올겨울 이집트 여행상품 주목 7대 관광도시서 고대문명 탐방 국내 항공사, 직항 전세기 투입 여행사, 다양한 이집트 여행 출시

많은 12월 6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모두 12편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좌석 수는 3000여석으로, 대한항공보다 1000여석 많다.

NHN여행박사는 '이집트 일주 10일' 상품을 내놨다. 터키항공을 이용하고 전문 인솔자가 동행한다. 5성급 나일 크루즈 3박 및 5성급 특급호텔 4박 숙박, 카이로-아스완 구간 국내선 항공 이동이 1회 포함됐다. 이집트 대표 관광도시 7곳을 일주하고 타진, 타메야 등 이집트 음식 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상품가는 189만 9000원부터다.

한진관광과 롯데관광은 9일짜리 상품을 구성했는데, 두 여행사 모두 열띤 판매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조건기준으로 우선 한진관광은 12월9일 출발 가능한 '다시 돌아온 태양의 나라' 이집트 완전일주9일 (항공1회+일급호텔3박+나일크루즈3박) 상품이 보인다. 상품가는 239만9000원이다.

롯데관광은 '인살라(inchallah)! 고대 문명의 종착지 이집트일주'란 이집

트 교통수단의 상징(펠루카 탑승+전일정 5성급 호텔+홍해바다 휴양도시 후루가다 자유일정+나일강 크루즈 3박) 상품인데, 가장 빠른 출발은 12월 11일 아에로플로트 러시아항공을 이용한 199만9000원 상품이다.

아시아나항공을 주로 활용하는 곳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KRT 등 모두 5개 여행사다.

참좋은여행은 라르고 PLUS 상품으로 '항공이동 2회+이집트 일주+러시아 10일'(월드체인 특급 2박+크루즈 슈퍼리얼급 3박+후루가다 자유시간) 까지 12월7일 출발기준 239만원부터 판매중이다.

모두투어 홍보담당자는 "유럽 사업부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세기 투입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다른 유럽 상품에 비해 집중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물론 직항 항공편이 아니라 경유 항공편으로 이집트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많다. 특히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터키항공과 아에로플로트 러시아항공 이용이 눈에 띈다.

한진관광 홍보담당자는 "올겨울 이집트 전세기 상품이 여행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행상품"이라며 "고객도 열심히 하고 있어 지난해 완판 신화를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픽스타

## 뱀부항공·PAA

# 한-베트남 노선 확대... 하늘길 넓어진다

내년 韓-하노이·호치민 노선 취항

뱀부항공과 PAA는 11월28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베트남 기획투자부, 주한베트남 대사관 등이 주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베트남 노선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번 MOU 서명은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뱀부항공이 올해 1월 상업비행을 개시한 이래 한국을 첫 국제선 정기편 운항지로 선정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특히 뱀부항공이 최근 10월 16일 인천-다낭을 시작으로 11월 17일 인천-나트랑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양측은 뱀부항공의 한-베트남 노선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뱀부항공과 PAA는 한국-베트남간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0년도에는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인천-하노이, 인천-호치



한-베트남 노선 확대 MOU 체결하고 뱀부항공 당탕탕 부회장(오른쪽)과 PAA그룹 박종필 회장(왼쪽)이 한국-베트남 노선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뱀부항공

민 노선을 차례로 취항하고 그 외 잠재력 있는 한국 지방도시와 베트남 주요 도시의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베트남 주요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으며 유일하게 항공서비스 부문에서 뱀부항공과 PAA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 대표인 당탕탕 뱀부항공 부회장과 PAA그룹 박종필 회장은 한-베트남간 항공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승객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에 집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민희 기자

## 카탈루냐·바르셀로나 관광청

# 여행사 초청해 바르셀로나·카탈루냐 알려

13개 현지 호텔업체와 방한

최근 수년간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목적지로 손꼽히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지역을 알리기 위한 관련 관광청이 13개 현지 호텔 및 어트랙션 업체를 이끌고 방한했다.

리디엔코는 카탈루냐관광청과 바르셀로나 관광청 홍보 설명회를 지난 11월 28일 조선포에서 국내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졌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한국인 방문객이 선호하는 카사 바트요, 문세라트, 카사 밀라, 토레스와이너리 등 주요 관광지도 떠오른 곳을 비롯, 음식문화 체험 및 호텔업체들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참석해 열린 세미나가 진행됐다.

최근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지역을



다비드 폰트 카탈루냐 관광청장이 한국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관련지역 설명을 하고 있다. /리디엔코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국적이 직함이 증편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4% 성장하였다. 내년에는 바르셀로나에 집중된 여행상품 일정이 인근 2시간 거리의 도시와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새로운 일정으로 출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희 기자

## 셀러브리티크루즈 韓 크루즈 여행업계와 교류의 밤

갈라파고스 기항 소식 알려

셀러브리티크루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애플 우 세일즈국장이 플로라호·엑스퍼디션호의 갈라파고스 기항 소식을 안고 한국을 방문, 11월 27일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크루즈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교류의밤을 만들었다.

로얄캐리비안, 셀러브리티, 아자마라크루즈의 한국총판을 맡고있는 이재명 투어마케팅코리아 대표는 "크루즈를 나눠서 판매할 때가 됐다. 바로 프리

미엄·디럭스·럭셔리 등 세분화된 방식이다"며 여행업계 크루즈 관계자들에게 2020년 셀러브리티 크루즈 계획과 화이팅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대표는 5스타 셀러브리티 계열 플로라호와 엑스퍼디션호가 갈라파고스 제도를 기항지로 선택해 운항한다는 소식도 함께 알렸다.

총 탑승객 100명인 셀러브리티 플로라호는 2019년 5월 첫 취항을 했고, 5739톤의 12노트 속도를 가진 스위트 럭셔리 크루즈 라인이다. /이민희 기자